제14강 기(氣)란 무엇인가

(1교시)

역(易)이 늘 변전(變轉)하는 세계의 현상적인 특징을 가리킨다면, 기(氣)는 이 흐르는 현상의 실체이다. 그리고 氣가 머금고 있는 법칙성들은 도道(또는 훗날의 개념으로는 리理, 태극太極)이다. 이 개념들은 동북아 세계관의 근간을 형성한다. 이중 오늘날까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고 논의되고 있는 것은 특히 氣이다.

氣는 근본 실체이기에 그 자체는 경험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어떤 氣, 氣의 어떤 양태이다. 즉 氣가 변해 가는 방식인 기화(氣化)나 어떤 기들 예컨대 심기(心氣), 허기(虛氣) 등을 경험한다. 氣를 실체로 보고 그것의 양태들이나 변화 과정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거꾸로 말해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양태들이나 과정들, 사건들을 氣로 소급시킴으로써 통일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예컨대 몸과 마음의 힘이 살아나면서 활력이 생길 때 “氣가 솟구친다”, “기분(氣分)이 날아갈 듯하다”라고 말하고, 그 반대의 상황에서 “氣가 빠진다”, “氣가 죽었다”고 말함으로써, 서로 반대되는 두 현상, 두 체험, 두 상황을 氣라는 어떤 실체의 상반된 변화 과정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氣라는 실체를 통해서 우리의 두 경험이 통일된 어떤 시야 속에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지식의 발달 과정에서 이런 구조는 항상 나타난다. 그 긍정적 측면은 잡다한 현상들을 어떤 이론적 가설을 통해 연관지어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고, 부정적 측면은 무한히 다양한 사실들을 어떤 한 원리로 소급시켜 이해함으로써 개별적-실증적 설명보다는 형이상학적 일반화를 꾀한다는 점이다.(‘신神의 뜻’ 같은 개념이 전형적인 예)

氣 개념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일반화된 개념이지만(모든 것은 氣이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내재성과 구체성을 함께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개념임에 틀림없다. 극히 모호하면서도 매력적인 개념이다.

(2교시)

갑골문의 기, 금문의 기를 거쳐 형성된 氣 자는 처음에는 ‘气’로 쓰였다. 고체들인 물(物)이 아니라 굳어지기 이전의 흐르는 실체이다. 나중에 쌀 미(米)가 추가되었다. 여기에는 쌀의 에너지라는 뉘앙스가 함축된다. → 곡기(穀氣)

이 점에서 그리스 철학에서의 질료, 물질과 비슷한 면이 있지만 그러나 氣는 훨씬 큰 함의를 갖춘 개념으로서 사용되었다.

氣는 형상을 수용하는 바탕이 아니라 자체가 근본 실체이다.(주자학 등의 예외도 있다) 또 그것은 입자로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다. 의미가 다변적(多變的)이어서 모호하다. 그러나 그만큼 해석의 여지가 많아 사유를 자극하기도 한다.

氣는 늘 형용어를 달고 다닌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氣의 어떤 양태들이기 때문이다. 이때 형용어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 1) 비교적 구체적인 형용어들. 곡기(穀氣, 쌀이 갓추고 있는 기) 등
 좀더 추상화될 경우, 예컨대 대기(木氣, 오장육부를 설명하는 한 갈래로서의 간肝 중심의 기)
 특정한 기능에 연루된 기, 예컨대 망기(望氣, 전투 때 매우 중요한 기였음)
- 2) 상당히 추상화된, 넓은 범위의 기. 예컨대 심기(心氣), 정기(精氣), 신기(神氣) 등
- 3) 모든 기들이 띠게 되는 근본적인 두 속성: 음기와 양기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역유태극 시생양의 양의생사상 사상생팔괘

기학(氣學, 기론(氣論), 기철학(氣哲學), ...등 여러 표현들이 있음)은 세계를 대대관계(待對關係)로 본다. 호흡(呼吸), 주야(晝夜), 강약/강유(強弱/剛柔), 상하(上下), ...등.

이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헤겔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부정(negation)과 대립(opposition)의 사유와 통한다.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

그러나 강도(intensity), 정도(程度), 차이(差異), ...등을 사유할 여지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후대에 이르러 氣의 보편적인 두 속성이 음양 개념과 특히 신체의 기를 질적으로 변별해 놓은 오행의 기들 사이에 복잡한 연결점들이 생겨남으로써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이 탄생했다. 특히 신체를 위주로 氣 개념을 상설(詳說)해 놓은 저작으로는 『황제내경(黃帝內經)』이 있다.

오행 개념은 『서경(書經)』에 처음 등장한다. ‘홍범구주(洪範九疇)’에 등장하며, 사물들의 매우 구체적인 분류체계를 뜻했다. 그리고 여러 경우들 사이에 상응체계(corresponding system)를 설정했다. 이것은 현상적 경험들을 통일해 주기도 하지만 견강부회(牽強附會)를 일삼기도 하는 기학(氣學)의 장단점을 모두 함축한다.

오‘行’이라는 표현이 보여주듯이 오행은 실체들이 아니라 길들, 과정들이다. 그러나 그리스의 사원소설과는 성격이 다르다. 중요한 것은 상생상극(相生相剋)의 관계이다.

(3교시)

氣란 무엇인가

비교담론학적 서설

한 개념의 의미는 그 개념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론적 층차, 그리고 그 개념의 역사적 변환을 충분히 고려했을 때 명료화된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명료화 외에도 또 하나 필수적인 것은 그 개념을 다른 개념들과 비교하는 과정이다. 여러 담론들에서의 한 개념의 사용, 여러 문화권에서의 유사한 개념들의 사용(그 동일성과 차이), 여러 개념들의 연계성 등을 분명히 할 때 한 개념에 대한 이해는 깊어진다. 특히 서로 전혀 다른 문화권에 속하는 동북아와 서구의 개념들을 비교하는 것은 각 개념들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비교를 통해서 의미가 명료화된다.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각각의 의미가 명료화되는 것이다. 이 강의는 동북아의 기학과 서구의 존재론을 비교함으로써 기 개념을 보다 명료화하고 나아가 세계를 보는 보다 넓은 안목을 창출하기 위한 실험적 강의이다. 기학의 역사와 그에 상응하는 서구 담론사를 비교, 연구하고자 할 때, 우선 제기되는 문제는 기학에 상응하는 서구 담론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물음에 답하려면 우선 기학 자체의 의미가 고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학 자체가 긴 역사 속에서 그 의미를 바꾸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미 문제는 복잡한 것으로 드러난다. 또 기 개념 자체의 의미론적 층차가 복합적이라는 점도 감안되어야 한다. 일단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대응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기학과 서구 자연철학. 기학이 산천초목(山川草木)이나 금수(禽獸), 또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해명하는 담론이라고 생각하는 한, 그것은 서구의 (현대의 자연과학까지 포함하는) 자연철학과 상응한다. 이 경우 철저한 자연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사유들과 기학은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자연을 문화에 대립시키는 한에서, 이러한 일치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동북아의 기학은 마음[心]이나 때로는 역사까지도 포함하는 보다 일반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자연철학이라는 범주가 일단 자연과학들의 메타적 종합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면, 서구 자연철학은 기학보다 좁은 범위를 다룬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우주론’이라는 개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우주론은 좁게는 종합적 천문학을 뜻하고 넓게는 자연철학과 유사한 작업을 뜻하기 때문이다.

기학과 서구 형이상학. 형이상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한편으로 ‘존재로서의 존재’를 (또는 중세인들이 표현했듯이 ‘탁월한 존재’로서의 ‘신’을) 다루는 담론이며, 다른 한편으로 ‘제일 원리들’을 다루는 담론이다. 중세 철학은 『영혼론』의 내용 및 『자연철학』의 내용(중 원리적인 부분들)까지 형이상학에 포함시켜, 일반존재론과 세 가지의 특수존재론(합리적 신학, 합리적 자연철학, 합리적 영혼론)으로 체계화한다. 이렇게 보면 기학과 형이상학이 보다 더 상응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기학은 기를 최고의 원리로서 간주하는 반면, 중세 이래 서구 형이상학은 자연 – 설사 이 말의 의미를 가장 넓게 잡는다 해도 – 위에 존재하는 초월적 차원, 운동하지 않는 차원을 전제했다. 이 점에서 기학과 형이상학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 물론 현대에 이르러 서구 형이상학은 대개 일원론적/내재적 생성철학의

형태를 띠게 되며 따라서 기학에 상당히 근접하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함의는 남아있으며 따라서 두 개념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

기학과 서구 존재론. 존재론은 때로는 형이상학 중에서 '제일 원리들'을 다루는 부분을 가리키기도 하며(중세의 '일반존재론'), 때로는 존재자들을 가장 포괄적인 방식으로 파악하는 담론을 가리키기도 한다(중세의 '특수존재론'). 그러나 중세를 제외한다면, 존재론이라는 말에는 초월적 존재를 다루어야 한다는 함의는 없다. 존재론은 한편으로 세계를 가장 포괄적으로 다루는 담론이며(내용적 존재론), 다른 한편 내용을 빼고서 그 추상적인 원리들만 다루는 담론이기도 하다(추상적 존재론). 이렇게 볼 때 기학은 특히 서구 철학에 있어 존재론에, 그 중에서도 특히 내용적 존재론에 상응한다. 존재론이라는 말은 자연철학보다는 포괄적이며(모든 존재자를 다루므로), 형이상학처럼 초월성이라는 함의(신에 대한 탐구)를 전제하지 않는다. 자연철학, 형이상학, 존재론이 곳곳에서 겹치며 그 구분이 미묘하긴 하지만, 이상의 비교를 통해 볼 때 우리는 기학과 존재론을 비교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미리 논의해 두어야 할 것은 방대하기 이를 데 없는 기학사와 서구 존재론사를 어떤 구도에서 비교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관점에 따라 많은 입장들이 있을 수 있다. 하나의 가설로서, 여기에서는 기라는 개념이 세계의 철학적 이해에 있어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가에 입각해 논의 구도를 잡았다. 이렇게 잡을 경우, 기학-존재론사는 우선 고대, 중세, 근현대로 삼분될 수 있다. 여기에서 고대, 중세, 근현대라는 말은 편의상 사용한 것이며, 반드시 역사학상의 구분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고대 기학과 존재론: 고대에 기는 서구어 'physis'(자연, 본성), 'psyché'(영혼, 생명)를 비롯한 여러 개념들과 대응하며, 우주의 근원적인 생명, 바탕, 본체로서 이해되었다. 중세 기학과 존재론: 동북아에서의 성리학, 서구에서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기·질료를 리·형상에 복속시킴으로써 합리주의적인 철학을 전개했다. 근현대 기학: 근현대 기학에서 기·물질은 리·형상에서 해방되어 다시 궁극적 실체의 자리를 되찾는다(물론 이런 흐름과 다른 사유들도 근현대 내내 함께 발전한다). 근현대 기학은 다시 삼분될 수 있다. 근대 1기의 기학: 내재적 생성철학의 방향으로 나아간 기학. 서구의 경우 중세 존재론과 근세 물리학이 혼용되어 있는 17세기 철학이 이에 해당된다. 왕부지와 스피노자가 대표적이다. 근대 2기의 기학: 본격적인 서구 근대 과학의 영향을 받고서 다시금 재정식화된 기학. 최한기가 대표적이다. 근대 3기의 기학(현대 기학): 아직 구체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기학. 즉 서구의 현대 과학 및 철학을 포용하면서 새롭게 형성될 기학. 이 현대 기학을 구축하는 것이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과제이다.

역사는 무한한 인물들, 상황들, 사건들, 자료들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역사에 일정한 분절선을 도입하고, 이름을 붙여 등질화하고, 취사선택을 통해서 일정한 인물들, 사조들만 뽑아내는 것은 사실상 무한히 풍요로운 역사의 장에 일정한 범주적 폭력을 가하는 것이다. 더욱이 한번의 강의에서 2000년이 넘는 세월의 담론사를 다루어야 하는 우리의 논의에서 이런 단순화를 피할 수는 없을 듯하다. 지금의 우리 논의는 다만 앞으로 보다 본격적인 논의로 들어가기 위해 실험적으로 그런 일종의 지도에 불과하다. 본격적인 탐색을 위해서라도 우선은 지도가 필요하기에 말이다.

※ 참고문헌

1. 철학사 일반

람프레히트, 『서양철학사』, 김태길 외 옮김, 을유문화사
: 내용도 명료하고 번역도 무난해 일차적으로 추천할 만한 저작이다.

길희성, 『인도철학사』, 민음사
: 인도철학사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책.

풍우란, 『중국철학사』, 까치
: 중국철학사를 지나치게 이학(理學)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그러나 고전적인 저작이므로 읽어두는 것이 좋을 듯.

2. 철학의 탄생

콘포드, 『종교에서 철학으로』, 남경희 옮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종교에서 철학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불연속보다는 연속으로 본 책. 초기의 철학 개념들이 종교와 단절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나온 것임을 역설하는 책이다.

베르낭, 『그리스 사유의 기원』, 김재홍 옮김
: 뛰어난 저작. 그리스 사유의 탄생이 어떤 정치적 맥락에서 성립했는가를 흥미진진하게 보여주고 있다.

스넬, 『정신의 발견』, 까치
: 고전적인 저작. 그리스인들에게서 어떻게 영혼, 정신의 개념이 발견되었는가를 잘 서술해주고 있다. 그에 대한 반론들도 많다.

3. 자연=튀지스의 탐구

구드리, 『희랍철학입문』, 박종현 옮김, 종로서적
: 자연철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까지의 사상 전개가 매우 간명하면서도 밀도 있게 썩어져 있다.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는” 책으로서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책들 중 하나이다.

로이드, 『그리스 과학사상사』, 이광래 옮김, 지성의 샘
: 과학사의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여타 책과 변별되는 매력이 있다. 논의가 지극히 명료하다.

주곤백, 『주역입문』, 예문서원
: 주역에 관련된 기초적인 논의들을 잘 정리해 놓았다.

『기학의 모험』, 전3권, 철학아카데미 엮음, 들녘
: 기학에 관련된 철학사적 논의, 그리고 무용, 음악, 요리, ...등 문화 속에 깃든 기, 그리고
한의학, 풍수를 비롯해 기를 기초로 하는 과학 등을 종합적으로 탐색한 책이다.

4. 인문정신의 발흥

『논어』, 이을호 역주
『논어』, 성백효 역주
플라톤, 『변명』
플라톤, 『유티데모스』
플라톤, 『에우튀프론』
크세노폰, 『소크라테스의 회상』